곡성 구원지구, 문화체육공간 바뀐다

농림부 농촌공간정비 공모 선정
올해부터 5년간 총 90억원 투입
축사 등 유해시설 철거 정주 개선

곡성군은 구원지구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곡성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곡성군 사업대상지인 구원지구는 돈사·계사·메추리사 등 축사가 밀집돼 있어 악취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여름철에는 약 2km 넘게 떨어진 곡성읍 시가지에도 축사 악취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사시설이 도림사 국민관광단지,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등 곡성군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관광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축사 철거와 부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는 '농촌공간정비로 소생되는 새로운 문화삶터 구원지구'를 목표로 올해부터 5개년에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 내 축사 등을 철거하고 부지 약 3만 3,000㎡를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생태공원, 산책로 등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이 축사 시설 악취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개선하고 군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고흥군은 최근 선양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잰걸음

필리핀 지방정부 3곳 맞손

고흥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최근 선양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3개 지방정부(리잘시, 미날린시, 라파즈시) 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양국 두 기관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3개 지방정부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지원하고, 고흥군은 필리핀 지방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관내 농어가에 배치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필리핀 2개 지방정부(산 레오나르도시, 페나란다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2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법무부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11명(농업 225명, 어업 86명)을 배정받은 상태다.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농어가에 계절근로자 배치를 완료해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계획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에 많은 농·어업인이 참여해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 확대를 기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등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양 도시 간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포스코그룹,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

입장권 4억2천만원 구매

기업시민 포스코그룹이 최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전달식에서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 이진수 광양제철소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3년 순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시 소재 포스코 그룹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해 총 4억 2,000만원 가량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협력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이웃 지자체인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을 지원하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구매한 입장권은 광양제철소 임직원뿐 아니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2023정원박람회 지원과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모두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포스코그룹이 최근 순천만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순천시 제공

이진수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2023정원박람회가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광양제철소는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화순, '적벽 버스투어' 확대 운영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화순·광주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으로 적벽 진·출입권에 관한 관리권이 화순군에 이양됨에 따라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전면 확대 운영한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재개되는 2023년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기존 사전예약제 '화순 적벽 버스투어(화순읍 출발)'와 사전예약 없이 현장탑승으로 진행되는 '적벽 셔틀버스'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화순적벽 버스투어(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출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 일 운행한다. 탑승인원은 회당 60명(2대)이며, 이용요금은 1인당 1만원이다. 사전예약 없이 현장탑승으로 진행되는 '적벽 셔틀버스'는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 금, 토, 일, 운행하며, 탑승 장소는 화순온천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화순적벽 입구 3개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한다.

탑승 인원은 회당 30명(1대)이며, 이용요금은 화순온천주차장 7,000원, 이서커뮤니티센터와 화순적벽입구는 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천하제일경 적벽을 쉽고 편리하게 방문해 감상하고, 적벽뿐 아니라 화순에 대한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가득 담아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흥출신 농협임직원, 장흥군에 고향기부금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이광일)는 최근 장흥군청에서 장흥출신 농협 임직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 출신인 ▲NH농협생명 김석찬 부사장(장흥읍) ▲남해화학 정안준 부사장(안양면) ▲주명규 진도군지부장(장흥읍) ▲김종명 화순군지부장(유치) ▲김형봉 광명역지점장(회진면) ▲김경숙 광주비엔날레지점장(장흥읍) ▲송순자 쌍촌동지점장(관산읍) ▲강경일 조합장(정남진장흥농협) ▲김영중 조합장(안양농협) ▲이광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총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문덕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 개선

보성군은 최근 문덕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복지기동대원은 7명이며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옥상 안전난간 및 집 내부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했다.

문덕면 염규옥 복지기동대장은 "문덕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의 주거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애 문덕면장은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광양 금호동 지사협, 나눔가게 현판식

광양시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금호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제1차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후 BBQ치킨 금호점에서 나눔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나눔가게 지정'은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업체에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에게 착한 기업 인식제공과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2호 나눔가게인 BBQ치킨 금호점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치킨 3마리를 취약계층에 후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헌준 BBQ치킨 금호점 대표는 "금호동 저소득층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성진 기자

고흥 두원면, 현장중심 이색 이장회의

고흥군 두원면이 최근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고흥갑재민속전시관에서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는 면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사항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관내 주요 관광지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면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전통민속놀이,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전시관을 견학하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한 관광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서 도출된 좋은 아이디어는 면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고흥=진중언 기자